

가나안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의 안식일의 안식이신 그리스도

성경: 히 3:7-4:13

I. 히브리서에 나오는 안식일의 안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처음 언급된 안식일의 안식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 창 2:2-3.

- A.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완성하시고 만족하셨으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통치권을 포함한 그분의 권위가 그분의 원수를 굴복시키기 위해 행사되려던 참이었다 — 창 1:26.
- B.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상황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께 안식일의 안식이 된다. 안식일의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만족된 것이다 — 창 1:26-28, 히 2:6-8상.
- C. 하나님의 일곱째 날은 사람의 첫째 날이었다. 사람은 창조된 후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 비교 마 11:28-30.
- D.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준비하셨으므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모든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일을 멈추고서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누림과 안식과 만족으로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 출 20:8.
- E.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최종적이며 영원한 안식일의 안식일 것인데, 이는 새 예루살렘에서 구속 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광 안에 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 계 21:10-11, 22:1, 4상, 5하.

II. 안식일의 안식은 가나안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이다(신 12:9, 히 3:7-4:13). 그리스도는 세 단계로 성도들에게 안식이 되신다.

- A. 교회 시대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대표하시고 만족하게 하셨으며,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면서 하늘들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이 되신다(마 11:28-29).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안식일의 안식은 가나안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이다(신 12:9, 히 4:8).
- B. 천년왕국에서, 사탄이 이 땅에서 제거된 후에(계 20:1-3)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이기는 성도들에 의해 표현되시고 대표되시며 만족을 얻으실 것이다. 그럴 때 왕국과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는 이기는 성도들에게 더욱 충만한 안식이 되실 것이며, 이기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들이 되어(계 20:4, 6) 그리스도의 안식에 동참하여 누릴 것이다.
- C.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포함한 모든 원수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 후(고전 15:24-27),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백성에게 영원토록 가장 충만한 안식이 되실 것이다.

D.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에 언급된 안식일의 안식은 처음 두 단계에서, 특별히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안식은 우리가 부지런히 추구하여 들어가야 할 남아 있는 안식이다.

1. 처음 두 단계의 안식은 주님을 부지런히 추구하는 사람들, 곧 그분을 충만하게 누려 이기는 이들이 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다. 세 번째 단계의 안식은 상이 아니라, 구속받은 모든 이들에게 할당되는 완전한 몫이다.
2.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두 번째 단계에서, 그분은 천 년 동안 온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만드시어 그분의 유업으로 소유하실 것이다 — 시 2:8, 히 2:5-6.
3.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두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첫 번째 단계에서 자신들의 안식으로 추구하고 누린 그분의 모든 이기는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계 20:4, 6, 딤후 2:12). 그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고(마 5:5, 시 37:11, 눅 19:17, 19), 그들의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마 25:21, 23).

III.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 A. 수고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과 종교적인 규정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수고를 가리킬 뿐 아니라, 어떤 일에서 성공하려고 분투하는 수고를 가리킨다.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 B. 안식은 율법이나 종교 혹은 어떤 일이나 의무로 말미암은 수고와 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온전한 평안과 충만한 만족을 가리킨다.
- C.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이나 종교의 어떤 의무에 규제되거나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며, 아버지의 뜻에 제한받는 것이다.
- D. 주님은 그렇게 사시면서 다만 아버지의 뜻만 주의하셨다(요 4:34, 5:30, 6:38, 사 42:4상, 비교 53:2, 11:1-4상).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셨다(마 26:39, 42).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엡 4:20-21).
- E. 온유하다 혹은 온화하다는 것은 반대에 저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겸허하다는 것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셨으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무언가를 얻기를 기대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안식이 있으셨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만족하셨다.
- F.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으로써 우리가 얻는 안식은 우리의 혼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만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안식이다.
- G.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다. 그런 멍에는 편하여 결코 괴롭지 않으며, 그런 짐은 가벼워 결코 무겁지 않다 — 비교 말 3:14.
- H. 그분의 멍에가 편하다는 것은 그분의 멍에 곧 아버지의 뜻이 ‘어렵고, 엄하고, 날카롭고, 괴롭다’는 것과 대조적으로 ‘좋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유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 이후에 안식일이 나오는 것을 제시한다.

- A. “너희는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운 표시이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표시이다. 이는 여호와가 육 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해졌기 때문이다.” — 출 31:13, 16-17.
- B.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시며 상쾌해지셨다’. 사람은 하나님을 상쾌하게 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동반자와 배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C. 우리는 다음의 신성한 원칙, 곧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누림을 공급하시고, 그런 다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원칙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
- D.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군.”(행 2:13)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순절 날 제자들은 주님께 대한 누림으로 충만했다. 그런 다음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일했다(행 2:14).
- E. 하나님께 이것은 일하시고 안식하시는 문제이지만, 사람에게는 안식하고 일하는 문제이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됨으로써 주님과 함께 일한다.
- F.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지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 — 고전 15:10, 58.
- G. 우리가 지니는 표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상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런 다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바로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하나 되어 일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 곧 영원한 계약이다.

V.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수단은 하나님의 살아 있고 효력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찢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다’ — 히 4:12.

- A.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곧 신약의 믿는 이들에 대한 예표이다(고전 10:6상, 11).
 - 1.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구출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속받아 세상에서 구출되었다.
 - 2.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다가 방황하는 이들이 되었다. 우리의 방황은 항상 혼 안에서 일어난다.
 - 3.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의 풍성에 참여하고 이 풍성을 누렸던 것처럼, 완전하게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4. 히브리 믿는 이들은 그들의 히브리 종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 안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혼 안에서 방황하는 것이었다.
- B.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혼의 방황 가운데 머뭇거리지 말고, 영 안으로 힘써 나아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분을 누리라고 권면했다.
1.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롬 8:34) 자신은 지금 우리 안에(10절), 즉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엡 2:22) 우리의 영 안에 계시신다(딤후 4:22).
 2.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곧 하늘의 문인 벤엘에서 그리스도는 땅을 하늘과 연결시키시고 하늘을 땅으로 이끄시는 사다리이시다(창 28:12-17, 요 1:51). 오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이 하늘의 문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사다리로서 땅에 있는 사람들인 우리를 하늘로 연결시키시고 하늘을 우리에게로 이끄신다.
 3.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하늘의 문을 통해 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만진다 — 히 4:16.
 4. 머뭇거리는 히브리 믿는 이들은 그들의 혼 안에서 방황하며 그들의 영을 무시했지만, 신약은 전적으로 우리의 혼이 아닌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문제이다 — 롬 8:16, 딤후 4:22, 갈 6:18.
- C. 히브리 믿는 이들의 혼, 즉 머뭇거리는 생각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의심하는 것과, 혼 자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 혼은 살아 있고 효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찢려 파쇄되어야 했다. 이것은 그들의 영과 혼을 나누기 위한 것이었다 — 히 4:12.
1. 골수가 관절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영도 혼 안의 깊은 곳에 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려면 주로 관절을 깨뜨려야 하는 것처럼, 영과 혼을 나누려면 혼이 파쇄되어야 한다 — 벧전 3:4.
 2.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영과 혼을 나누고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며, 어느 것이 자아에 속하고 자아를 위한 것이며, 어느 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드러낼 정도로 충분히 살아 있고 활동적이며 날카로워야 한다. 말씀이 살아 있고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영 안에서 온갖 기도로 말씀과 믿음을 결합해야 한다 — 히 4:2, 엡 6:17-18.
 3.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찢어 쪼개고 우리의 머뭇거리는 생각과 방황하는 혼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우리의 영 안에서 안식일의 안식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야 한다. 우리는 혼의 방황 가운데 머뭇거리지 말고, 혼을 부인하며,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 안으로 힘써 나아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분을 누려야 한다.